<10.16873/tkl.2024. 96. 4>
한국문학논총 제96집(2024. 4) 551~578쪽

냉전 사회를 돌파하는 지식인 빨치산 소설의 사회성 연구*

- 이병주의 대하소설『지리산』을 중심으로

이 선 미**

차 례

1. 소설『지리산』의 시간과 사회담론적 위치
2. 학병거부자와 지식인 빨치산
3. 지식논쟁의 대화체 서사, 인식론과 사회주의
4. 1985년의 한국사회와『지리산』의 탈냉전적 기운
- 결론을 대신하며

국문초록

한국사회에서 빨치산의 문학적 형상은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듯 변화무쌍하다. 탈/냉전의 정치적 영향이 심하고 사회적 관념의 이데올로기적 금기가 여전한 한국사회에서 한국소설의 빨치산 형상은 탈/냉전의 정치적 변화와 긴밀히 연관된 문학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여전히 반공주의가 검열의 잣대 역할을 하던 시기에 창작된『지리산』은

* 이 연구결과물은 2021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경남대학교 교수

1972년부터 1985년까지 장기간의 창작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성격을 가늠하는 텍스트로 역할했다.

『지리산』은 몇 사람의 수기와 작가의 자전적인 체험까지 합쳐져 구성된 실록 형식의 장편소설이며, 창작의 동기에서부터 소설이 놓여진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의식하고 그 시대와 관계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염두에 둔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즉『지리산』은 발표되는 순간, 혹은 다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순간, 그 시기마다 당대 사회의 담론장에 관여하고 그 시대의 어떤 지식, 혹은 인식에 저항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한 의도를 내장한 텍스트다. 여러 번에 걸쳐 연재와 마감을 반복하고, 출간될 시기의 사회적 담론에 맞추어 보강된 점 등은 이런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처음 연재될 당시 소설『지리산』은 실존 인물 하준수의 수기를 바탕으로 학병을 거부하고 지리산으로 들어간 지식인 청년들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일본군에 가담하기를 거부하고 지리산으로 도피하여 독립의 의지를 다지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산사람들의 삶이 한국 근대 지식 청년들의 항일 활동의 한 계보로서 구성되는 서사를 만들어낸다. 이후 한국의 청년 지식인들이 해방 후 공산주의 활동가로 전환하는 과정은 식민지 청년의 학병 거부와 빨치산 활동이 식민지 독립과 분단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여지를 만들어낸다. 공산주의 사상과 활동을 놓고 이어지는 주인공을 둘러싼 지식인들의 사상토론이 대화체로 세밀하게 묘사되는데, 이를 통해서 지식인 청년들의 진정성과 열망을 설득력있게 전달하기도 한다. 소설『지리산』은 지리산 빨치산들의 좌절, 또는 인식적 오류를 한국 근대 청년 지식인들의 치명적인 역사적 패배로 비판하지만, 그들의 삶과 내면의 심리를 사상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빨치산 형상을 복원한다. 학병거부를 위해 지리산으로 들어간 빨치산을 근대 지성사의 한 계보로 위치짓는다는 점에서 빨갱이로 죽어간 지식인들을 복원하는 역사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지리산, 이병주, 냉전, 탈냉전, 지식인, 사회주의, 학병 거부자, 빨치산, 대화체

1. 소설『지리산』의 시간과 사회담론적 위치

'빨치산과 친일파'는 식민지 시기에서부터 시작된 한국 근대사회의 역사적 형상이지만, 해방 이후 냉전이 지속되는 분단의 사회구조 속에서 그 시간의 문제들로서 청산되지 못하고 지연된 역사의 형상이다. 그리고 이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구조의 변화를 담아내는 상징물과 같은 형상이 되었다. 탈/냉전의 세계적 변화와 민주화라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맞이하여 1987년 이후의 사회갈등적 국면마다 논점이 집약되는 문제적 형상이다. 이런 관계성 때문에 이 두 형상의 '상상적 구조'는 한국사회의 정치적 외연을 가늠하는 감각적 경계선을 보여주기도 한다. 적어도 해방 이후 한국근현대사에서 이 두 형상은 문학적인 것만으로 한정되지 않는 사회적 담론장의 경계를 만들어내는 정치적 감각판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1)]

특히 탈/냉전의 복합적 기운이 엉킨 실타래처럼 얽혀들어 사상적 난맥상이 더 깊어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빨치산'의 형상은 사회적 공감대의 한계점을 감지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 되었다. 1980년대 중반 한국사회의 민주화 운동이 폭력적인 탄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들불처럼 번져갈 수 있었던 것도 빨치산의 형상이 한국지성사의 한 계통으

1) 이혜령은 빨치산과 친일파라는 기표가 한국사회의 탈/냉전적 시기마다 정치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문학적 형상으로 의미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문학적 형상이 사회적 공감대와 정치적 감각을 반영하는 식으로 변주되고 사회담론 구조와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고 면밀히 분석한 바 있다. 이혜령,「빨치산과 친일파 - 어떤 역사 형상의 종언과 미래에 대하여」,『대동문화연구』10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7.12. 참조.

로 해석되었던 국면과 상호작용한 정동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한국소설의 빨치산 형상은 탈/냉전의 정치적 변화와 긴밀히 연관된 문학적 이슈라고 할 것이다. 오랫동안 필화 사건에 휘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켰던 『태백산맥』은 이 관계성을 실증하며, 여전히 진행형임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현실을 환기한다.

이렇듯 탈냉전의 기운 속에서도 여전한 빨치산 형상이 어느 지점에서 한국사회 냉전구조를 흔들거나 재편하였는가를 추적해보는 일은 빨치산 문학의 사회적 의미를 규명하는 중요한 문제의식일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사회 냉전의 구조를 흔들고, 또는 재배치하는 담론화로서 빨치산 문학의 사회적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지리산』의 의미를 따져보고자 한다.

『지리산』은 1972년 9월부터 1978년 8월까지 60회에 걸쳐 <세대>지에 연재된 후, 1978년 1차로 두 권의 단행본이 출간된다. 이후 1981년에 새롭게 내용이 첨가되어 장학사에서 8권으로 출간되지만, 곧바로 『한국문학』에 그 뒷부분인 "허망한 정열"[2]이 연재된다. 그리고 1985년 완성본의 형식으로 전 7권이 기린원에서 출간된다. 이후 2006년에 한길사로 출판사를 옮겨서 이병주 전집의 한 부분으로 발행되어, 완결판의 모습을 갖춘다.[3] 지리산 빨치산을 다룬 소설들은 하나의 계통을 이룰 정도로

2) 1981년 장학사 출판본 이후 새로 써서 그 해 『한국문학』에 연재한 부분이다. 연재시에는 "허망의 정열"이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1985년 기린원 출판사에서 출간될 때 6권 "분노의 계절"이라는 타이틀 하에 "허망한 정열"이라는 세부 제목으로 변경된다. 8권으로 출간된 장학사 판본에는 없었던 부분이며, 기린원 출판사에서 출간될 때는 6권 외에도 7권이 추가되어 완간된다.

3) 단행본으로 출간된 이후에도 그 후 과정이 다시 연재되는 등, 연재와 출판이 반복된 경우가 있는 『지리산』의 판본 확인 작업은 한길사에서 이병주 전집이 발간된 이후에도 정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최근에 박숙자는 두 번의 연재 상황이나, 1978년 세운문화사, 1981년 장학사, 1985년 기린원, 2006년 한길사 등 4번에 걸쳐 단행본으로 출간된 상황 등을 정리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박숙자, 「'빨치산'은 어떻게 '빨갱이'가 되었나: 1970-80년대 고통의 재현불가능성 - 이병주의 『지리산』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7-2, 대중서사학회, 2021.6, 145쪽; 각주1) 참조) 그러나 이 논문도 장학사 판본과 기린원 판본의 비교작업에서 틀린 부분이 있어, 완결된 서지 작업이라고 볼 수 없다. 기린원출판사 2권 '기로에서' 부분이

남북한 문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4] 단지 등장인물의 신원으로서가 아니라 사상이나 활동의 측면을 내면적으로 다루는 경우는 소설 『지리산』이 첫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특히 1980년대 사회변혁의 기운 속에서 대중적 담론의 한 양상으로 섞여들어간 텍스트라는 점에서 빨치산의 사회담론화와 관련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리산』은 해방 직후 『신천지』에 소개된 「신판 임꺽정 - 학병거부자의 수기」를 토대로 이태의 수기를 첨가하고, 작가의 자전적 요소가 보태어져 역사실록의 형태로 발표된 대하장편소설이다. 「신판 임꺽정 - 학병거부자의 수기」는 일제 때 학병을 거부하고 지리산에 입산하여 보광당을 창당하고 해방 직후 함양 건준위원과 공산당 간부로 있었으며, 48년 8월에는 해주 인민대표자대회에 참가하고 한국전쟁 때는 조선인민유격대 사령관이 된 하준수(남로당사에는 南道富로 나옴)의 수기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태의 수기는 소설 후반부에 실명으로 활용되며, 이 수기는 80년대 후반 『남부군』[5]으로 다시 등장한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로서 『지리산』의 주인공인 하준규, 박태영, 이규 외에, 하라다 교장, 사이토, 영어교사인 구지마는 모두 실제인물을 참조하여 창조된 인물이며,

---

장학사 출판사 판본에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계절'과 '작은 공화국'에 나뉘어져 포함되어 있다. 최종판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길사 판본은 기린원 출판사 판본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구별할 필요가 없고, 세운문화사, 장학사, 기린원(한길사) 세 개의 판본은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각 판본이 발간된 시기 한국사회 냉전구조와 『지리산』의 내용은 밀접히 관련될 것이라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지리산』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빨치산'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지식인의 항일독립운동'으로 추적해서 사유하게 만드는 서사전략을 해명하려는 문제의식이 앞서는 관계로 판본 연구와 관련된 소설의 서사적 의미는 차후의 연구로 미뤄둠을 밝힌다. 처음 전집으로 완간된 기린원 판본과 한길사 판본은 동일하기에, 이 논문은 한길사 판본을 대상으로 인용한다.

4) 빨치산은 남북한 문학에서 모두 한국전쟁의 경험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룬다. 이에 대한 사(史)적 정리는 김복순, 「'지식인 빨치산'의 계보와 『지리산』」, 『인문과학연구논총』 22,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12. 참조.

5) 『남부군』은 1988년도에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된다. 이임자, 『한국출판과 베스트셀러: 1883~1996』, 경인문화사, 1998. 참조.

이현상, 박헌영 등은 모두 실명이다. 실록의 형식을 띤 『지리산』은 사회적 금기인 빨치산을 사실적 기록의 형식으로 다루고 있기에, 창작의 동기에서부터 소설이 놓여진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의식하고 그 시대와 관계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소설은 발표되는 순간, 혹은 다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순간, 그 시기 시기마다 당대 사회의 담론장에 관여하고 그 시대의 어떤 지식, 혹은 인식에 저항하고 그것을 바꾸는 자리에 스며들 듯이 놓여진 소설이다.

사실에 근거한 기록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1972년부터 1978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연재된 『지리산』은 1978년 두 권으로 출간된 이래, 몇 차례에 걸쳐 내용을 첨가하여 재출간하는 방식으로 십 년이 넘는 시간동안 창작의 과정을 거친다. 1978년에 연재가 중단된 후 발간된 1978년 판본이나 1981년 판본은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였지만, 1985년 기린원출판사에서 간행된 7권짜리 완간본은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로서 당대의 사회적 담론화에 얽혀든 소설이다.[6]

어떤 지점에서는 사회적 공감과 인정을 얻어내면서 빨치산을 국민 내부로 호명하게 만들었으며, 어떤 지점에서는 반공주의를 구축하는 반공문학의 정수로 비판되기도 하는 등, 상반된 해석도 가능한 자체 모순성을 지닌 텍스트이다.[7] '반공주의자'라는 정체를 노골적으로 끊임없이 발산하면서 근근히 『지리산』을 한국사회 내부에 잔존시키는 이병주의 드

6) 1987년 이후 여러 신문에서 출판계의 베스트셀러 현상을 사회사적인 대중문화 또는 사회담론화로서 다루며, 이중 빨치산 소설, 혹은 사회주의와 관련된 담론화를 중요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꼽는다. 『지리산』은 『태백산맥』과 더불어 이런 사회현상의 중요한 작품 목록으로 거론된다. 한만수, 「대중의 꿈 - 욕망이 담긴 시대의 거울」, 『경향신문』, 1995.8.10, 27면 참조.

7) 이런 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된 『지리산』의 특성인데, 소설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중에 비교적 최근에 연구된 두 논문이 이런 상반된 해석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지리산』의 모순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박숙자, 앞의 글; 정주아, 「이병주의 『지리산』과 부르조아 지식인의 공산주의」, 『현대소설연구』 88,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12. 참조.

라마틱한 전기적 사실들은 모순적인 방식으로 『지리산』의 빨치산 형상에 그대로 투영되기도 한다.[8] 이 모순성은 청년, 지식인, 빨치산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주요 인물 형상에 그대로 작동하는데, 이 모순성이 만들어낸 빨치산 형상은 '사실성'과 관련하여 한계를 지닌다고 평가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사회에 진입하고 잔존할 수 있었던 요소이기도 할 것이다. 1972년부터 연재되어 1985년 완간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지리산』의 여정은 '북괴'라는 단순한 적대적 형상에서 벗어나 인간의 형상으로 빨치산이 등장한 후, 한국사회의 사회담론장의 변화를 예감하게 하는 반공문학의 스펙트럼을 지닌다. 이 모순성의 양상과 당대의 상식적 관념에 저항하는 담론적 특성을 통해 『지리산』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병거부자와 지식인 빨치산

총 7권으로 간행된 『지리산』은 1권의 첫 부분에서부터 주인공으로 역할하는 진주중학의 수재인 두 청년들의 지식 취향과 습득과정을 몇 개의 일화로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청년들의 지식인적 면모와 지식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다. 『지리산』에서 지식인과 사회주의는 처음부터 가

8) 서은주는 이병주 문학의 모순성이 작가의 모순성에서 연유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계를 넘나드는 이병주 문학의 회색지대는 어쩌면 이데올로기적 보수성과 체험의 개방성 사이의 괴리 혹은 균열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이병주 소설의 특성이 작가의 인간적 태도와 연결된 문제임을 논한다. 즉 이병주 문학의 반공문학적 특성의 근거가 되는 역사 허무주의가 "적어도 1960년대 문학의 자장 안에서는 탈냉전 이데올로기의 제시라는 차원에서 비판적 유효성"을 지닐 수도 있다고 작품과 사회의 관계로서 해석한다.(서은주, 「소환되는 역사와 혁명의 기억 - 최인훈과 이병주의 소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30, 상허학회, 2010.10, 166쪽 참조.) 『관부연락선』에 대한 평가지만, 『지리산』이 1970-80년대와 맺는 관계 속에서도 비슷한 담론적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

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물의 정체성이며, 소설 전체의 방향성이다.

도입부인 주요인물 이규의 성묘 장면에서부터 지리산은 중요한 정체성의 공간으로 등장한다. 가파른 지리산 골짜기에 위치한 조상묘를 찾아 성묘하는 장면을 통해 선비집안 출신 지식인인 이규의 정체가 장황하게 제시된다. 그리고 중학교에 간 이규가 가장 친한 친구인 박태영이 소지한 책과 그의 일기에 연루되어 경찰서에 연행되고 일본 교장의 탄원에 의해 풀려난 사건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문제가 된 책은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소설가 막심 고리키의 수필집과 소설 『어머니』, 자전소설 『나의 대학』 등이다. 진주중학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동경으로 유학을 가서도 수재로 통했던 청년인 이규와 박태영이 일본 경찰에 의해 연행될 만큼 문제된 책은 바로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기의 가장 유명한 소설가인 막심 고리끼의 소설이었던 것이다. 『지리산』은 시작부터 천재적인 두뇌와 독립의 열정을 간직한 주인공 청년들이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권 안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설정하여, 한국의 지식사에서 사회주의가 큰 영향을 끼친 점을 부각시킨다. 두 청년이 모범적인 지식인으로 성장하는 성장서사의 형식을 취하는 가운데, 이 성장 과정에서 '사회주의'가 중요한 지식의 원천이며, 윤리적 자아 구축의 토대임이 드러난다.

게다가 사회주의권 도서와 관련된 경찰 연행 사건을 뒤이어 거대한 서고에서 인류사적 지식의 보고를 발견한 듯 경이로워하는 장면이 제시되는데, 위의 사건과 이 장면은 한꺼번에 어울려 지식인 청년의 성장 후를 예견하는 장면들로 역할한다.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는 주체로서 청년들은 진주 갑부인 하영근[9]의 서재를 구경하는 장면에서 더 구체적

9) 하영근은 이규와 박태영을 어린 학생일 때부터 주시하여,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후원자가 되는 인물이다. 이 청년들에게 자신의 이상을 투영했다고 할 정도로 청년들의 강력한 조력자가 된다. 김윤식은 하영근을 청년들을 계몽하는 멘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김윤식, 「지리산의 사상과 『지리산』의 사상」, 『지리산』 7, 한길사, 386쪽.) 그러나 하영근은 박태영이 만난 여러 인물들에 비하면

으로 '지식'으로서 '사회주의'에 경도되고, 일본의 식민화를 반대하는 저항적 주체로 정체화된다.

> 절간의 큰 방을 연상케하는 넓은 온돌방이었다. 규는 자기들 교실 두 배쯤의 넓이가 되는 방이라고 추측했다.
> 큰 벽면의 3분의 2가량을 서가가 차지하고 있었다. 저쪽 구석에 소파를 끼운 응접 세트가 놓였고, 이쪽엔 병풍을 배경으로 보료가 깔려 있었다. 서가 사이사이엔 족자가 걸렸고, 불상을 비롯한 미술품도 적당히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방 하나로써 동서양의 생활방식을 겸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음이 분명했다.
> 규는 종갓집도 부자여서 그 집에 있는 희귀한 조도품調度品을 보아오기도 한 눈이었지만, 하영근의 서재를 겸한 그 방은 커다란 놀람이었다. 규는, 부자라는 것이 이렇게 우아하고 기품있는 호사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이라면 부자 되길 열렬하게 추구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다.[10]

"호사"로 여겨질 만큼 기품있게 꾸려진 서가의 풍경이다. 하영근은 서가를 보고 놀라며 공부하고 싶다고 말하는 태영에게 철학자와 물리학자, 경제학자 문학자 등을 거론하고, 중국의 작가 노신을 설명해준다. 하영근의 서가는 1천 2백 권의 영어 원서가 한 부분의 서가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 서가에는 프랑스 원서, 그 다음 서가에는 독일 서적, 일본 서적, 조선 서적 등이 연이어진 놀라운 규모다. 아직 성장기 학생인 청년들은 이 거대한 서가의 공간에 압도된다. 『지리산』 초반부 두 청년의 성장기에 등장하는 하영근이라는 사람과 더불어 그의 서재, 즉 지식의 저장고로 상징화된 서재의 책들은 청년들의 꿈과 열망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절대 공간으로 상징화되면서 두 청년의 미래를 지식인으로 상상하도록 이끈다. 『지리산』은 책과 더불어 지식을 전달하고 나눠주고, 혹은 이

사상적 논쟁을 많이 하는 인물은 아니다. 오히려 하영근의 서재와 장서라는 물질성, 즉 지식을 상징하는 공간이 이 청년들의 삶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0) 이병주, 『지리산』 1, 81쪽.

끌어주는 선배와의 관계를 통해 청년기를 통과하여 성장해가는 전형적인 교양소설의 문법을[11] 따른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서재가 절대적인 공간으로 신화화되듯이, 사회주의 지식 역시 신비롭고 윤리적인 사상으로 상징화된다. 『지리산』의 첫부분에 등장하는 검열 사건과 하영근의 서가 장면은 청년들의 선한 의지와 윤리적 성찰의 '마음'을 생성시키는 지식으로서 '사회주의 사상'을 제안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동하여, '사회주의' 지식을 불온적인 것에서 명예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뛰어난 수재였던 청년의 성장서사는 사회의 주체로 성장하는 서구식의 교양소설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 두 청년은 식민지와 전쟁을 겪으면서 정상적으로 사회에 진입을 하지 못한다. 뛰어난 학습 능력과 윤리적인 판단력이 오히려 덫이 되어, 험준한 지리산 속의 '산사람'으로 비극적 생을 마감하거나, 머나먼 유학길에 오르면서 해방후 한국사회에서 배제된다.

사실, 1960년대만 해도 빨치산은 악질적인 공비, 즉 절대악으로 이미지화되어 초역사적 존재처럼 인식되었다.[12] 사회담론 영역에서 또는 교육 현장에서 한국전쟁과 연관된 북한이나 빨치산은 이런 방식으로 절대적 '악'으로 상징화되었다. 그런 중에 『지리산』은 책의 가치를 존중하는 지식인 청년들이 빨치산이 되어 짐승처럼 죽어가는 사회라는 역사적 현실을 다룬다. 천재적인 청년 박태영을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써 지리산

11) 교양소설은 독일의 성장소설을 지칭하는 개념에서 생겨났다. 괴테의 『빌헬름마이스터의 수업시대』를 해석하는 데 활용된 이론이다. 이후에 『데미안』을 비롯한 헤르만헤세의 소설이 교양소설을 대표한다고 알려져있다. 한국문학에서는 성장을 통해 사회로 진입하는 양상이 드러나는 1960년대 소설을 주로 교양소설로 개념화한다. 이에 대해서는 복도훈, 『자폭하는 속물 - 혁명과 쿠데타 이후의 문학과 젊음』, 도서출판b, 2018 참조.

12) 문순태는 6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 마을 창고에 붉은 페인트로 '김일성 찢어죽이자'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을 정도로 북한을 괴뢰 집단으로 터부시하였다고 기억한다.(「상처의 기억과 공동체적 삶」, 현기영 외, 『기억과 기억들』, 씽크스마트, 2017, 85-137쪽.

으로 들어가서 '공비'로 죽은 청년들이 '악질적이고 반(反)사회적인 빨갱이'라는 인식을 의심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낸다. 나아가 이들의 철학적·사상적 기반으로서 사회주의를 하나의 이념/사상으로서 성찰한다.

지식을 절대화하고 책을 사랑하는 지식인의 정체성을 장황하게 서술한 소설 첫 머리의 설정은 이후 전개되는 빨치산의 내적 세계를 '짐승같은 악질 사상'이 아니라, 지식을 향한 열정과 윤리적 주체화의 열망이기도 하다는 점을 제안한 것이 된다. 작가 스스로 인정하는 『지리산』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이며, 첫 부분의 지식, 책 서사가 의미있게 해석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 그러나저러나 이런 분자들의 선동과 조종을 받아 그 많은 청년들이 공비라는 누명을 쓰고 죽어야 했다고 생각하면 의분을 억제할 수가 없다. 말하자면 소설 『지리산』의 주제는 바로 이 '의분'이다.[13]

『지리산』 말미에 붙은 작가 후기의 한 대목이다. 이병주는 이 소설이 하준수와 이태의 수기를 비롯하여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실록'의 형식임을 강조하면서, 소설을 쓰게 된 동기를 설명한다. "많은 청년들이 공비라는 누명을 쓰고 죽어야 했"던 역사적 상황에 "의분"을 느껴 이 청년들의 삶을 제대로 말해보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지리산에서 죽은 청년들을 인식하는 사회적 판단이 그릇되었고, 그 인식에 분함을 느낀다는 것을 공표하기 위해 『지리산』을 쓰게되었다고 작가 스스로 밝힌 것이다. 학병을 거부하기 위해 지리산으로 들어가고,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 체력을 연마하고, 정치사상을 교육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운동으로 모아짐으로써, 지식인과 빨치산은 서사적으로 연결된다.

---

13) 이병주, 작가 후기, 『지리산』 7, 378쪽.

> 1년 8개월 동안 우리는 이 날이 오길 기다렸다. 배가 고픈 것을 참고, 집이 그리운 것을 참고, 온갖 욕망을 모두 참고 우리는 이 산골에 숨어 살면서 오직 이날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그날이 드디어 왔다. 나는 한 사람도 낙오자 없이, 한 사람들도 병든 자 없이 고스란히 이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없는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이 이상의 영광이 없다고도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오늘의 이별이 슬프다. 오늘을 맞은 기쁨보다 이별의 슬픔이 더 크다. 지나온 나날이 힘겹고 고달프기도 했지만, 지금 뒤돌아보니 우리는 꽃밭에서 살아온 것이나 다름이 없다. 어젯밤에 성한주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로다. 이곳은 화원 花園이었다. 그러니 이곳에서 생각한 모든 생각은 화원의 사상이다. 기막히게 아름답고 거룩한 사상이다. 우리는 이 화원의 사상을 길이 잊지 말아야 하겠다. 화원의 사상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조국의 독립을 바랐다. 우리는 민족의 해방을 원했다. 일본놈의 속박, 그 압제에 항거했다. 그리고 보다 슬기롭게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애썼다. 이것이 곧 화원의 사상이다. 우리는 앞으로 더욱 이 사상을 가꾸어나가야 하겠다. 조국의 독립이 빨리 이룩되도록, 민족의 해방이 빨리 성취되도록 하는 것이 곧 화원의 사상을 가꾸는 길이다. 인제 우리 150명이 이 산에서 내려간다. 우리를 기다리는 사회는 복잡할 줄 안다. 이때까진 피하고 항거하고 싸울 작정으로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하고,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야 하고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줄 알아야 하고, 남의 고통을 나눠 고민해야 하고, 솔선수범을 할 줄도 알아야 하고, 일본 천황이 자기네 국민에게 가르쳤듯이 참지 못할 것까지 참고, 견디진 못할 것까지 견디어야 한다. 이것이 곧 화원의 사상이며, 지리산에서 배우고 괘관산에서 익힌 우리의 정신이다. 우리 보광당은 그야말로 민족을 고루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14]

책을 통해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근거로 행동하는 지식인/청년들은 지리산에서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과 정의로운 삶을 향한 '사상'을 키웠다. 지리산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을 키우는 지식인들의 거처로서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공산주의자로만 알려진 지리산의 빨치산들은 학

14) 이병주, 『지리산』 3, 155-157쪽.

병을 거부하고 독립운동을 준비하기 위해 지리산을 선택한 진주 토박이 청년들이었다고 증언한 셈이다. 비극적으로 제거된 빨치산이지만, 그 기원을 찾아가면 정의로운 사회와 조선의 독립을 열망하며 사상을 공부하고 힘을 키우는 젊은 청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성장기 청년들의 모습으로 보여준다. 위 인용문에서 강조한 "화원의 사상"은 지식인 청년들의 '지리산'을 강조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지리산에서 죽어간 청년들이 거대한 서재에 즐비한 책들을 읽고 사회적 리더로서 성장한 지식인이라는 사실을 구체적 실물의 세계로 표현할 때, 그리고 학병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산으로 들어가 독립의 열망을 키우는 청년들의 공동체에서 파생된 정치적 기운이 긍정적인 것으로 퍼져나갈 때, 비로소 '공비' 또는 '빨갱이'라는 인식에 저항할 수 있는 사회적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소설『지리산』은 이 저항을 위한 '지식인 서사'의 기획이다. 진주중학을 다니던 청년들에서 학병을 거부하기 위해 지리산으로 들어가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으로 성장하는 서사는 '악질 반동'이나 '불온'의 꼬리표를 달고 제거된 빨치산을 복원하는 구체적 기획의 서사물인 것이다.

3. 지식 논쟁의 대화체 서사, 인식론과 사회주의

학병을 거부한 청년들이 독립운동을 준비하며 빨치산으로 성장한다는 지식인 빨치산 서사는 사회주의자의 진면목으로서 교육과 사상 논쟁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현장을 통해 본격화된다. 이 내면적 성찰과정이 지식인 서사의 맥락을 형성한다. 특히 사상 갈등을 구체화하는 사상 논쟁이 장면적으로 제시되는 대화체 서사는 지식인 빨치산 소설의 성격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될 정도이다.[15] 이 중심에는 주인공 박

15) 사실, 지식인 빨치산의 형상은 지리산 이전 소설에서도 더러 발견할 수 있는 이

태영의 성격화방식이 작용한다.

지식인 박태영은 천재적인 두뇌로 인해서 많은 지식을 꿰뚫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기윤리에 철저한 성찰적 인물이며, 도덕적 인물이다. 천재적 지식인 박태영이 지리산을 사상의 거처로 만들었던 것은 지리산을 근거로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실천적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간단히 요약할 수 있는 박태영의 지식인적 삶의 궤적과 고난의 과정은 박태영의 행동을 결정짓는 수많은 사상적 고민과 논쟁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소설을 읽어감에 따라 그를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박태영이 만나는 지식인들이 모두 이런 진지한 태도로 스스로의 행동을 위한 사유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여러 지식인들과 박태영이 나누는 대화는 대화체로 현장감을 자아낸다. 대화의 현장성은 사상적 논쟁을 주저하지 않는 지식인으로서 빨치산을 정체화한다는 점에서 인물성격화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박태영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은 거대한 정치적 사건들에 대응하는 행동을 하기에 앞서 세계사적인 정치 상황이나 강대국들의 정치적 관계, 그에 따른 국내 정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부한다. 이규와 박태영의 후원자이며 이들의 정신적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하영근은 서구 교양에 해당하는 다방면의 지식과 심미안을 갖고 있으며, 집 안에 장서를 보유하고 있어 철학은 물론이고, 세계 정세를 꿰뚫고 있다. 하영근의 서재에 처음 방문하던 날 이규는 서재의 규모와 공간을 채우고

넘적 인물 형상이다. 특히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의 하기훈은 고뇌하는 사회주의자, 지식인 빨치산의 형상을 대표한다. 그러나 하기훈은 인간의 모습을 한 빨치산으로 특화될 수는 있지만, 지식인으로서 사상 갈등을 지식 논쟁으로 내면화한 사회주의자 지식인의 면모를 갖고있지는 않다. 『지리산』의 박태영을 비롯한 권창혁 등의 지식인적 면모가 남다는 이유이다. 지식인 빨치산 소설의 계보와 관련해서는 김복순, 앞의 글; 공임순, 「한국전쟁의 파국과 순국자(殉國者)에 반하는 순애자(殉愛者)의 무/국적 신체들-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에 대한 소고」, 『한국학연구』 5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11. 참조.

있는 물건들에 놀라면서도 해박한 그의 지식에 더 놀란다. '지식'은 이 청년들이 성장하여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다소 논쟁적인 과정을 대화의 형식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데, 대화라는 현장성을 통해 구체적 상황 판단을 자세히 전달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 하영근은, 이왕 그 길로 나서는 마당이니 항일 독립 운동에 관해서 자기가 아는대로 설명해주어야겠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안창호 선생이 돌아가신 후 국내에서의 활동은 별로 들먹일 것이 없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형무소 생활을 하고 있거나 감시를 받고있거나 총독부와 타협해버린 생활을 하고 있거나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눈에 띄진 않지만 독립에 대한 민족적인 정열마저 없어진 건 아니다. 한편 해외에선 항일 독립 운동이 비교적 활발하다. 만주의 독립군은 만주국의 건국과 더불어 주력을 잃은 모양이지만, 잔류 조직은 끈덕진 활약을 하고 있다. 중경엔 한국 임시정부가 있다.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 조소앙 선생, 장건상 선생 등이 중심 인물이다. 임시정부의 조직으로 광복군이 있다. 주동 인물은 이청전, 이범석씨등이다. 연안에선 김두봉 선생을 비롯해서 최창익, 한빈 씨 등이 독립 동맹을 결성하고 있고, 무정, 박효삼, 박일우 씨 등이 영도하는 의용군이 있다. 미국에선 이승만 박사가 임시정부 주미 위원회를 만들어 활약 중이다. 그 밑의 알아둠직한 인물은 임병직, 한길수 씨 등이 아닐까 한다."
> 태영은 하영근이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고 있을까 하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 "이태리가 항복하고 독일은 스탈린그라드에서 패배해 후퇴 중이라고 하니, 전쟁은 거의 끝장이 가까워진 것 같다. 거기다 지난 달 카이로 선언이 있고 했으니까 항일 운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그런 점 저런 점으로 해서 박군이 가는 길은 결코 고독한 길이 아니니, 마음 단단히 먹고 자중하도록 하면 영광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닐 거다……."[16]

지식사적 맥락을 지닌 이들의 대화를 통해 독자도 공부를 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도록 현장감을 부여한다. 위의 인용문은 박태영이 학병을 피

16) 이병주, 『지리산』 2, 한길사, 146-147쪽.

해서 지리산에 들어가기 전에 박태영에게 객관적인 국제 정세와 조선의 독립운동 상황을 브리핑하는 장면이다. 아직 미숙한 청년으로서 지리산을 선택한 박태영은 세계정세를 판단하면서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조언하는 하영근의 해박한 지식에 내심 감탄한다. 논쟁은 아니지만 이들의 대화는 상대편에 앉아있는 박태영 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 참여하는 독자를 향한 전언처럼 기능하여, 소설을 읽는 독자까지도 참여하는 지식담론장의 구조를 만들어낸다.

주인공 박태영은 역사적 상황에 따라 자신의 입지를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우연적이거나 심정적인 판단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인물이 아니다. 객관적인 상황 분석과 철학적 윤리의식을 겸비하고서 행동한다. 이 모든 과정은 충분한 공부와 도덕적 성찰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런 인식력을 갖추는 계기를 제공하는 지식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논쟁하면서 더 현명한 판단으로 깊어진다. 박태영은 사상적인 근거나 이론적 정립을 통해서 행동의 원칙을 마련하는 식으로 실천을 위한 윤리의식에 철저한 인물이어서, 자신의 선택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 그래서 자신의 실천적 활동을 위한 논의를 가장 우선시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대화의 과정은 비교적 상세히 장면적으로 제시되는데, 박태영이 만나는 사람들과 격의없이 토론하는 장면은 독자들도 같이 공부하도록 이끌어, 소설이 독자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듯한 계몽적 효과를 발휘한다.

박태영이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박태영과 논쟁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박태영의 인식을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진주중학을 다닐 때 만났던 하라다 교장, 영어교사 구지마, 일본으로 건너가 우유배달을 하면서 만난 무나카와, 지리산에서 만난 권창혁, 이현상,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만난 당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의 면모를 지니고서 진지한 사유의 과정을 인물 간의 대화로서 표현하는데, 이 대화들은 박

태영의 성장을 중심으로 배치된다. 지식인들의 대화는 공동체와 사회의 지도자로서, 또는 주체적인 삶을 살기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생각하는 박태영의 사유과정을 위한 장치처럼 역할한다.

이런 성격과 자의식을 지닌 박태영이 전면에 등장하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소설은 당연히 극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논의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지식 논쟁으로 전환하는 장면들이 많다. 그리고 상황을 실감있게 전달하기 위해 주로 대화체가 활용된다. 대화 장면들은 논쟁적 과정을 거쳐 박태영이 추구하는 이념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 모든 대화의 계기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향한 열망이다.

하영근, 권창혁, 이규를 비롯하여, 하준규, 노동식 등 소설의 주요 인물들은 모두 자기 시대의 사회적 성격과 가치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불평등한 관계 등, 사람들이 사회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방식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구조, 제도 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리산'은 그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삶을 거부하는 대안적 삶의 형식이 실현되는 공간으로 의미부여된다. 이 공간에서 새롭게 구성될 사회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와중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사회주의인 셈이다.

> "이 세상은 노동자의 것도 아니고 농민의 것도 아니고 부르조아의 것도 아니고 하물며 공산당의 것도 아니고, 어떤 영역, 어떤 계층에 속해 있건 보다 진실하게 되려고 애쓰는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만을 믿지."
>
> "너무나 막연한 말 아닙니까."
>
> "막연해도 굳이 내 신념을 말하라면 그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하나."
>
> "일본 천황에게 충성한 청년들, 히틀러주의를 받든 청년들도 나름대로 보다 진실하게 되려고 애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의 말씀은 그런 청년들의 신념과 태도도 긍정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
> "보다 진실하게 되려고 애쓴다고 할 땐 이미 가치 기준을 전제로 한

게 아닌가."

"그 가치 기준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기 위한 개성의 존중,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기 위한 자유의 존중, 인간의 생존권을 존중하고 일체의 반인간적 조건을 극복하려는 노력 - 나의 가치 기준은 바로 이런 것이다. 자네가 아까 들먹인 일본의 천황주의자나 독일의 히틀러주의자는 모두 이 기준과 어긋나는 부류가 아닌가. 그러니 그들을 보다 진실하게 되려고 애쓴 사람들이라고 보진 않는다."

태영은 할 말이 더 있었으나, 자칫하면 권창혁의 심상을 해치는 방향으로 번질지 모르는 토론은 삼가기로 하고 부드럽게 물었다.[17]

박태영과 권창혁의 대화이다. 두 사람은 해방이 되고, 좌우대립이 심하고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을 평가하면서 논쟁한다. 박태영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 중에서도 권창혁과의 대화는 많은 지식을 전달받기도 하지만, 논쟁적인 요소도 많다. 그런데 이 대화의 과정은 인용문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학습하고 오랜 세월 깊이 고민한 생각들이고, 이 생각들을 현장감있게 일일이 대화에 담고있기 때문에 쉽게 비판할 수 없는 논리적인 면을 갖고 있다. 박태영도 감탄하는 권창혁의 말은 독자들 역시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인식론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게다가 한국사회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논란이 되는 사회주의 사상이어서 그 지식의 세계에 매료되는 양상은 강력하기도 하다. 대화의 내용이 사회주의를 비롯한 철학적 사유의 영역이고, 모르는 것을 알게하는 구조로 인해, 대화체 서사는 지식인 그룹의 많은 독자들이 공감하고 작품에 주목하게 하는 대중성의 요인이 된다.

『지리산』은 가장 격동이 심한 시대를 배경삼아 그 격동의 현장을 다뤘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의 평가나 관점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일제하에서는 창씨개명 사건에 대한 작중인물들의 의견과,

17) 이병주, 『지리산』 3, 한길사, 115쪽.

> 예방구금법을 비롯한 친일 유명인사의 행위에 대한 논평, 독일의 프랑스 침공, 스페인 내란, 일본 공산당의 움직임, 그 밖에도 문학, 교육제도, 군국주이 철학, 미국관, 농촌문제, 지도자상, 건준과 인공, 그리고 분단에 이르는 과정, 과격폭동, 소시민적 부르주아 의식, 혁명적 인간상, 당시의 서대문 형무소 풍습 등등 사회사적인 모든 문제가 삽화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작가의 의견 개진을 물론 궁극적으로 반공을 위한 기초 자료를 위한 것인데 특히 여순반란사건과 러시아혁명, 제주반란사건을 분석하면서 내린 결론 같은 것은 다른 어떤 작가에게서도 볼 수 없는 역사적 혜안을 느끼게 한다.[18]

분단문학의 특성을 오랫 동안 연구해온 임헌영의 평가이다. “사회주의 투쟁에 대한 평가와 반공사상의 천착은 실로 이병주 작가만이 해낼 수 있는 우리 세대 최고의 이념적 정치소설의 성공사례”[19]라고 말한다. 사회주의 사상논쟁을 직접 소설에 옮겨놓음으로써, 독자가 사실성에 몰입하고 각성한다는 의미에서 높이 평가한 논의라 할 것이다. 반공검열이 촘촘하게 이루어지던 1970-80년대에 검열망을 통과해 출간에 성공한 『지리산』은 사회주의 사상의 인류사적 의미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반공주의의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다. 권창혁의 경우처럼 많은 논쟁들은 치열하게 대화한 후 허무주의적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빨치산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치열한 지식논쟁을 묘사하다 보면, 인물들의 깊은 통찰과 논리적 사유능력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허무주의적 결론으로 정리된다 하더라도 그 논의를 위한 대화는 선택적으로 수용될 여지를 만든다. 대화 현장의 디테일들은 각각의 논리적 사유의 독립성을 지닐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기 때문이다. 이런 단편적 장면의 선택적 수용이라는 ‘독서’의 작동은 『지리산』의 반공주의적 주제의식과 출동하는 소설의 성격이다. 『지리산』의 출간에는 한국사회와 작가 자

18) 임헌영, 「현대소설과 이념문제」, 『역사의 그늘, 문학의 길』, 한길사, 2008, 233-234쪽.
19) 임헌영, 위의 글, 234쪽.

신의 모순적인 이중성이 문학작품 내외적으로 얽혀있었고, 이 모순성이 빚어내는 애매모호한 성격으로 인해 『지리산』은 검열망을 통과하여 1970-80년대 한국사회의 한 소설로서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역사책도 아니면서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안목을 갖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실제 현장감을 높이는 소설적 형상화 속에서 역사적인 객관적 자료와 지식을 통해 역사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낸다면, 소설인가 아닌가라는 논의가 무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설 『지리산』은 이렇듯 역사적 사건들이 오해되고, 망각되는 시대에 소설의 형식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환기함으로써 독자들의 삶에 인식적으로 개입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의 대중적 인기를 통해 이런 사회적 효과와 인식론적인 양상을 해석해 볼 수 있다. 특히 유신독재의 검열구조와 사회담론장의 반공주의적 통제로 인해 실제 역사적 사실조차 도깨비 놀음으로 둔갑시키는 궤변이 상식으로 통용되던 시대라면, 이 소설의 가치는 새삼 돋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빨치산들의 이념 편향을 따지기 위해 설정된 이 대화체 서사는 공산주의 비판이라는 반공문학적 주제실현을 위한 세부묘사일 텐데, 오히려 그 리얼리티로 인해 의외의 문학적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1985년의 한국사회와 『지리산』의 탈냉전적 기운 - 결론을 대신하며

『지리산』은 1972년 <세대>지에 처음 연재되기 시작하였고, 1978년 8월 60회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가, 1985년 기린원 출판사에서 단행본 7권으로 출간되면서 완성된 장편소설이다. 1981년 8권으로 출간된 이후 세간에 알려지지만, 1985년 완간된 이후 당대 사회담론장에서 논란이 되고,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는다.[20] 1985년은 남한사회에서는 금기의 영역

이었던 많은 책들이 학생운동이 전면화되는 1980년대 중반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출판 시장에 등장했던 해이다. 1985년 4월에는 『지리산』(기린원) 7권, 1985년 5월에 『임꺽정』(사계절)이 10권으로 출간되었고, 1985년 1월에는 소설 『지리산』 1권 첫 부분에 등장하는 구소련의 작가 막심 고리키의 소설 『어머니』(석탑)가 출간된 바 있다. 지리산이라는 공간을 통해 빨치산의 활동을 실록의 형식으로 그린 『지리산』의 완간은 다분히 이런 사회적 상황에 발맞춘 출판계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21]

『지리산』의 연재가 시작되던 1972년은 남북적십자 회담이 이루어진 시기이면서 10월 유신이 단행된 해이다. 정치적인 통제는 심해지면서도 공산주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분위기도 같이 무르익는 이중적인 사회구조가 생겨나던 때이다. 단순히 '빨갱이'를 '악질 반동 공비'의 형상으로만 다루던 소설들은 '사회주의'를 한 인간의 실존적 선택으로 다루기 시작한다. 분단의 역사에서 비극적으로 소멸해간 실패자들로 인식된 첫 번째 시기이다. 소설 『지리산』이 1972년에 처음 연재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사회의 이런 이념적 정치 상황의 변화와 연관된다.[22]

1972년에 연재를 시작하여 1985년에 완간되었지만, 소설 『지리산』은

---

20) 안경환은 이병주에 관한 전기를 출간하는데, 『지리산』의 대중적 인기에 내재된 모순된 이중성을 중요한 특성으로 분석한다. 안경환, 『이병주 평전』, 한길사, 2022, 504쪽 참조.

21) 1980년대 세계정세의 변화와 한국사회의 대외 개방정책 등은 1980년대 정치적 탄압과는 별개로 냉전의 구조를 완화시키며, 이로 인해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 지형이 변화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봉범의 『한국의 냉전문화사』에 실린 "한반도의 내부 냉전" 파트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22) 1972년은 국제적인 데땅트 분위기에 맞추어 남북적십자 회담이 논의되면서 한국사회에서 탈냉전 분위기가 생겨난다. 이 정치적 상황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해서 생겨난 냉전구조의 사회변화는 문학 창작과 검열에 영향을 끼친다. 김원일, 이문구, 황석영, 박완서 등 월북자 가족이나 관련자들을 다루는 소설이 동시에 발표되는 것도 이런 사회 분위기와 관련된다. 김복순, 앞의 글; 이선미, 「냉전과 소설이 형식, '(경남)진영'의 장소성과 사회주의자 서사(1)-김원일 소설의 아버지/아들 서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87, 한국문학회, 376-377쪽 참조.

현실 정치의 상황에 맞추어 사회적으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식으로 당대 담론장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한다. 해방 전 학병을 거부하며 지리산으로 들어가 군대를 만들고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며 빨치산 활동을 하던 때로 마무리되었던 1978년까지의 연재본은 『지리산』의 사상사적 의미를 학병 거부와 독립을 위한 교육과 훈련으로 구성한다. 반면, 1981년 『한국문학』에 연재했던 “허망한 정열”은 1981년 즈음의 사회적 담론에 맞춘 듯이 반공주의적 주제의식이 강화되기도 한다.[23]

1985년 기린원에서 단행본으로 발간된 이후, 소설 『지리산』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독자층을 넓혀간다. 1985년 이후 베스트셀러 목록에 항상 거론될 정도로 대중적 인기를 얻는다. 1980년대 중후반의 이데올로기적 금기의 영역을 넘나드는 작품들의 발간과 더불어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 작품으로 목록화되기도 한다.[24] 이때는 이미 1975년에 발간되었다가 절판된 김남식의 『남로당연구』가 1984년 4월에 돌베개 출판사에 의해서 재출간된 즈음이었다. 1983년부터 월북 작가 해금문제나 이데올로기적 금기의 영역을 해제하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운동가들과 관련된 역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정치적 욕구가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던 때였다.[25] 학병 거부에서

23) 1981년에 연재하는 “허망의 정열” 부분은 1985년 기린원 출판사 단행본 6권으로 출간된다. 1985년 판본의 6권과 7권은 주인공 박태영이 공산주의 사상을 비판하고, 회의하는 대화나 내면의식이 주를 이룸으로써, 반공주의적 면모가 확연히 두드러진다.

24) 1980년대 중반 이후의 베스트셀러를 선별한 신문기사들에서 이병주의 『지리산』은 박경리의 『토지』와 황석영의 『장길산』, 조정래의 『태백산맥』과 더불어 당대의 사회적 이슈가 반영된 독서목록으로 다루어진다. 1980년대 중후반의 한국사회는 탈냉전의 국제적 변화에 부응하는 사회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출판계의 변화가 정치적 금기를 앞질러가는 형국이었다. 대중적인 사회담론이 정치담론을 이끌거나 혹은 그것에 저항하고 재배치하는 역할까지도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불온서’, ‘금서’의 형식으로 정치적 검열이 횡행하던 시기를 사회담론의 변화로 돌파한 경향이 있다. 『지리산』이나 『태백산맥』은 이런 사회담론적 기운의 중심에 있는 작품들이다.

25) 월북작가 해금은 1988년에 법제화되지만, 1986년의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1980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고, 사회주의 운동으로 나아가는 지식인의 성장서사로서[26] 『지리산』은 학생운동이 거세게 몰아치던 1980년대 중반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타고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른다. 사회적 금기에 해당하는 빨치산을 다룬 『지리산』은 사회변화를 열망하는 탈냉전의 기운을 타고 당대의 담론장으로 스며들어가 그 기운을 더 퍼뜨려간 것이다.

『지리산』은 빨치산의 활동을 지식인들의 사상운동, 이념 논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식인 사회주의자의 사상을 논쟁적인 대화체로 서술하였다. '빨치산'으로 살다가 처참하게 처벌받았던 사람들이 짐승으로 취급되는 '빨갱이'가 아니라 사상적 선택을 끝까지 지켜내는 신념적 지식인으로 형상화하였고, 이에 따른 담론적 효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 "너만은 살아남아야 한다."
> "왜? 나도 여기서 죽겠다."
> 라고 순이가 말하자 박태영은 무서운 얼굴이 되었다.
> "순이야, 너는 살아남아야 해. 넌 살아남을 수 있어. 자아, 이 보따리를 갖고 뛰어라. 엄호해줄 테니까. 어떻게든 너는 살아남아 이 보따리를 김숙자에게 갖다줘라. 그리고 김숙자에게 일러라. 이규가 프랑스에서 돌아오면 이걸 그에게 주라고."
> 그래도 순이가 응하지 않자
> "네가 살아남아 이 기록을 숙자에게 전하지 못하면 지리산에서 죽은 파르티잔은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한다. 영원히, 영원히 죽을 수도 없다. 산돼지처럼 죽어야 한다."
> 라며 눈물을 흘렸다.[27]

년대 중반부터 논의되었으며, 불법 출판물의 형식으로 이미 북한소설이나 빨치산 관련 자료들이 출간된 상황이었다. 1980년대 중후반의 월북작가 해금과 관련된 정책적 변화나 냉전구조와 검열의 문제는 이봉범, 앞의 책 참조. 빨치산과 관련된 사회적 금기의 영역과 사회적 관념의 관계는 이혜령, 앞의 글 참조.

26) 김윤식은 하영근과 박태영, 이규의 관계를 근거로 하여 『지리산』을 "이데올로기 비판소설도 아니고, 빨치산 소설도 아니고, 한갓 교육소설의 범주에 드는 것"이라고 논한 바 있다. 김윤식, 『이병주와 지리산』, 국학자료원, 2010, 256쪽.

27) 이병주, 『지리산』 7, 한길사, 2006, 372쪽.

박태영이 지리산 토벌대에 휩싸여 죽기 직전에 순이에게 기록물들을 주며 하는 말이다. 소설에서 순이는 이 기록물들을 무사히 김숙자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마지막 파르티잔인 박태영과 정복희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붙잡히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소설이 출간됨으로써 이 파르티잔들의 삶은 기록으로 남고, 공적 담론으로서 세상에 알려진 결과에 이른다. 이것은 바로 소설인 듯 사실의 증언인 듯 이중적인 태도로 쓰여진 소설『지리산』의 실물적 위상이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질 때, 그래서 그 기록이 사회적인 관계망 안에 놓여져 공공연한 사회적 담론을[28] 형성할 때, 그때 산돼지처럼 죽을 수도 있었을 빨치산들은 "박태영"이라는 이름의 인간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학병을 거부하고 독립을 꿈꾸던 지식인 청년들의 고단한 삶으로 애도될 수 있다.

1972년 발표된 김원일의 소설인「어둠의 혼」의 마지막에는 지서 뒷마당에 거적대기에 덮힌 채 널부러져있는 시체가 아버지임을 확인하고서 두려움에 떠는 어린 소년의 눈물로 빨치산을 다룬다. 짐승처럼 죽어간 빨치산들은 모두 누군가의 남편이고, 형이며, 아들이고, 아버지인 한 사람의 '인간'임을 일깨우는 장면이다.[29] 1989년에 발표된『태백산맥』10권의 마지막에 청년단 대장인 염상구가 벌교역 앞마당에 내걸린 형 염상진의 목을 고통스럽게 바라보며, "요런 개좆 같은 새끼덜아, 살아서나 빨갱이지 죽어서도 빨갱이여! 당장에 못 띠내리겄어!"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있다. 이 역시 짐승처럼 처참하게 처형된 빨치산의 주검을 인간으로서 호명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1972년의「어둠의 혼」과 1989년의『태백산맥』의 거리는 꽤 벌어져있다. 1972년「어둠의 혼」에 등장하는 시체

28) 공식적 사회인식과는 다르지만, 공론화되었다는 점에서 공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

29) 김원일의「어둠의 혼」은 한국현대소설사에서 빨갱이의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논점을 제안하는 소설로 해석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선미, 앞의 글, 378-379쪽 참조.

의 신원이 모호하게 처리된 것과는 달리, 누군지 정확하게 밝혀져 가혹한 사회적 처벌이 내려진 빨치산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태백산맥』은 다른 차원의 사회의식을 담아낸다. 「어둠의 혼」과 『태백산맥』의 거리는 객관적 시간의 간격보다 더 크다고 할 정도이다. 그렇지만 이 두 소설은 『지리산』이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빨치산 형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담론장의 맥락을 형성한 듯 보인다.

'빨갱이'가 그저 지배계급에 대한 분노만을 갖고 잔인하게 피를 부르는 악질 반동으로 전혀 이해받지 못하던 시기에, 소설 『지리산』은 빨치산에게 학병거부와 독립의 열망과 보광당이라는 공동체의 사상을 부여하고, 윤리적인 성찰과 정의를 향한 열정과 세상의 이치를 파악하는 지성적 존재로서 지식인의 이름을 되찾아준다. 지식사적 계보화를 통해 정치적 복원을 시도한 것이다. 『지리산』이 『태백산맥』의 전사로서 빨치산 형상의 계보화에 중요한 좌표를 만든 것이다. 그 지식인의 이름을 발판삼아 빈농출신 아들의 이름을, 마을 공동체를 대표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찾아나간다. 『지리산』은 사회주의를 '역사의 그늘'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될 텍스트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이병주, 『지리산』, 장학사, 1981.
이병주, 『지리산』, 기린원, 1985.
이병주, 『지리산』, 한길사, 2006.

2. 논문

공임순, 「한국전쟁의 파국과 순국자(殉國者)에 반하는 순애자(殉愛者)의 무/국적 신체들 -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에 대한 소고」, 『한국학연구』 5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11, 313-341쪽.
김복순, 「'지식인 빨치산' 계보와 『지리산』」, 『인문과학연구논총』 22,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12, 35-55쪽.
김윤식, 「지리산의 사상 - 이병주의 『지리산』론」, 『문학사와비평』 1, 문학사와비평학회, 1991, 233-257쪽.
문순태, 「상처의 기억과 공동체적 삶」, 현기영 외, 『기억과 기억들』, 씽크스마트, 2017, 85-137쪽.
박숙자, 「'빨치산'은 어떻게 '빨갱이'가 되었나: 1970-80년대 고통의 재현 불가능성 - 이병주의 『지리산』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7-2, 대중서사학회, 2021.6, 143-177쪽.
서은주, 「소환되는 역사와 혁명의 기억 - 최인훈과 이병주의 소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30, 상허학회, 2010.10, 135-174쪽.
이동재, 「분단시대의 휴머니즘과 문학론 - 이병주의 『지리산』」, 『현대소설연구』 2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12, 327-347쪽.
이선미, 「냉전과 소설의 형식, '(경남)진영'의 장소성과 사회주의 서사(1) - 김원일 소설의 아버지/아들 서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87, 한국문학회, 2021.4, 356-396쪽.
이혜령, 「빨치산과 친일파 - 어떤 역사 형상의 종언과 미래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10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7.12, 445-475쪽.
임헌영, 「현대소설과 이념문제」, 『역사의 그늘, 문학의 길』, 한길사, 2008, 219-237쪽.
정주아, 「이병주의 『지리산』과 부르조아 지식인의 공산주의」, 『현대소설연구』 88,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12, 354-389쪽.
한만수, 「대중의 꿈 - 욕망이 담긴 시대의 거울」, 『경향신문』, 1995.10, 27쪽.

3. 단행본

김윤식 외, 『역사의 그늘, 문학의 길』, 한길사, 2008.
김윤식, 『이병주와 지리산』 국학자료원, 2010.
복도훈, 『자폭하는 속물 - 혁명과 쿠데타 이후의 문학과 젊음』, 도서출판b, 2018.
안경환, 『이병주 평전』, 한길사, 2022.
이봉범, 『한국의 냉전문화사』, 소명출판, 2023.
이임자, 『한국출판과 베스트셀러: 1883~1996』, 경인문화사, 1998.
정미진, 『이병주의 현실인식과 소설적 재현』, 역락, 2018.

<Abstract>

Novel as Knowledge that broke through the Cold War society
- focusing on the social meaning of『Jirisan』

Lee, Sun-Mi*

『Jirisan』is a novel written by combinig several persons' meomories and the author's autographical experiences. Since it is a form of the historical record, it is related to the political situation.『Jirisan』engages with contemporary public opinion and resists certain common sense.『Jirisan』was serialized several times. And the work had been republished several times with supplemented contents. In every process, it had an impact on the discourse of the time.

In Jirisan, young intellectuals studied the idea of philosophy and the theory of interpreting the society. And they trained their physical strength. They lived in community and prepared for motherland independence. They were partisans who were called evil communists.『Jirisan』was a story that partisans are also humans.

Key Words:『Jirisan』, Lee Byung-ju, intellectuals, socialism, communism, partisan, Post-Cold War, social discourse

▌논문접수 : 2024년 03월 23일
▌심사완료 : 2024년 04월 24일
▌게재확정 : 2024년 04월 24일

* Kyungnam University.